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본격 추진

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난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크게 완화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만 밀집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더 많은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13일부터 재개장

고창군이 오는 13일부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을 재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창군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낡고 오래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을 재정비했다. 수영장 구조와 내부 벽타일을 교체하고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를 새롭게 단장했다. 수영 강사 배치와 안전요원 운영 등 전반적인 이용자 편의와 안전 확보에도 빈틈없이 하고 있다. 8~9월 한시적으로 일요일에도 수영장을 운영하며, 평일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가족단위 군민의 편의도 높였다.

수영장 재개장은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 체질 개선을 앞두고 생활체육 분위기를 군민 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 우체국 부지 '시민광장' 조성

정읍시, 국토부 공모 선정... 녹지·쉼터 등 구도심 상권 연결·경제 활성화 도모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던 정읍 구 우체국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핫플레이스'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읍시는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 해당 부지에 녹지·쉼터·소규모 무대 등을 갖춘 광장을 조성, 구도심 상권 연결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부의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우려 지역에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규모 분야는 단기 간에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신설했는데, 전국 7개소 내외를 선정

해 최대 7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7억원과 시비 4억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해, 구 정읍우체국 청사 부지 1995㎡에 '새암달빛광장(가칭)'을 조성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광장에는 회랑형 쉼터·공원녹지·소규모 무대 등이 함께 들어선다.

시는 그동안 도심권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휴식 공간과 다수가 소통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시의회·지역주민·상인회·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결산설명회'

11일 수성동 시작 12월까지 23개 읍면동 순회... 투명 행정 구현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자난해 살림살이를 직접 설명하며 재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11일 수성동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23개 모든 읍면동을 순회하는 '시민중심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중심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는 시의 재정 운영과 결산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연도 재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설명회는 이제 시민 소통의 중요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정읍시 살림정보' 책자를 자체 제작해 배부했다. 설명은 △재정 이해하기 △세입·세출 결산 △한눈에 보는 살림살이 △재무제표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오는 12월까지 각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 더한다

관내 기업 청년 채용 지원... 월 180만원 인건비·자기계발비명절특별지원금 등 제공

고창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 청년에게는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 명절특별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2년 근무 후 관내 정규직 전환 또는 창업시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12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청년 나래이름(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기업에는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청년 대상 자기계발비가 지원되며, 2년 근무 시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별도 제공된다.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에 따른 취업장려금 제공, 참여 기업은 월 1인당 7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청년은 근무기간에 따라 총 300만원의 장려금 지원,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되어 세대 간 균형 있

는 일자리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창업지원 사업으로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단계별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창업 이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임대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전문성 높은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부 지역 균형 발전 기조 선제적 대응 강화할 것”

권익현 부안군수, 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 피해 예방 철저 등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11일 열린 주요회의에서 "재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지역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북의 주요 공모사업을 다수 선정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조기 완료해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앞으로 전북권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

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속히 발굴·기획해 당면 현안은 즉시 대응하고 동시에 중장기 과제도 사전에 건의해 관계 부처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부안군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사업에 선제적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최근 군 공무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물품구매 대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전 인근지역 503만 연대 공동성명

전국원전동맹행,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확대 촉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이하 원전동맹협의회)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해당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2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과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으나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모여

결성된 협의이다.

방사는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사명운동 추진 등 전 국민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노력을 해왔다.

공동성명서에는 시행령안의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건의, 원전정책 결정시 원전인근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기초단체장 등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사고 발생시 그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단 한 걸음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정읍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식을 마련한다. 경축식은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 연지아트홀에서 열리며,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광복절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와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광복 그날의 기쁨을 함께하길 바란다"며 "광복절 당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